

### 지상 법석

# 오욕락에 꼬달리면 천해져"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선생님을 영어로 티처(teacher)라고 하고, 대학교수지도자를 프로페서(professor)라고 하고, 인생의 지도자를 멘터(Mentor)라 하는데, 이 인생의 지도자를 한번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단 한 사람의 멘터(Mentor)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 빈 손으로 왔듯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분석해 말할 때 나라는 것은 육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위근의 육근을 나의 뿌리라 하는데 알음알이를 일으킬 때는 육식이라고 합니다. 또 번뇌를 일으킬 때는 육진이라고 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육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도적놈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이 다 생각해서 집착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인 관공사들까지 돈

그러니까 판사가 괴롭고, 변호사가 괴롭고, 검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오로지 곡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농부는 괴로움에 싸입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떨어져서 고민이요, 흉년이 들면 곡식 값은 올라가지만 양이 적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같이 돈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정적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과 긍정까지도 모두 뛰어 넘으면 깨치게 됩니다. 그와같이 이 물도 감로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하면 관세음보살을 정성스럽게 부르니 난 후에 물을 마시면 그대로 감로수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 엔젤린이 증가하고 화를 내면 아르레날린이 나온다고 과학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괴롭고, 변호사가 괴롭고, 검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오로지 곡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농부는 괴로움에 싸입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떨어져서 고민이요, 흉년이 들면 곡식 값은 올라가지만 양이 적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같이 돈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쓰러지고 만다. 이 율타리가 바로 계율이요, 법입니다. 옛날에 해가스님이 달마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지상극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니 달마스님께서 "마음을 관한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섭렵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추임을 따라가면 중지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욱 쉽게 풀이하면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육근, 육식에 꼬달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데 꼬달려도 안되고 듣는데 꼬달려도 안됩니다. 오욕락이란 재, 색, 신, 명, 수입니다. 돈버는 재미, 날터 간의 사는 재미, 잘먹고 잘자는 재미, 이불날리는 재미, 잡지는 재미에 꼬달려서는 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열심히 장사한 사람은 저녁이 되면 하루 벌이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지를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늙지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창조론과 진화론

김성규

어린시절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 하더라."하는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누구나 몇몇 일 씩 고민한다고 발뚱도 없었던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실 하나만 놓고 정말 진화가 가능한가? 하는 식의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코넬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낸 화이트는 1896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기독교 국가에서의 과학과 신학과의 논쟁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일 반진화론자인 원고를 지지하였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인권 변호사 대로는 피고를 변호하였다.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이 사건은 어빙 스톤의 '대로의 변론'에서 다루어졌으며, 여기서 티로는 "스코프스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 문명 전체가 시험에 든 것이다. 원고는 중세기와 같은 완고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만일 반진화론자들이 승리한다면 누구의 믿음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브라이언은 "이 시험은 계시된 종교에 대한 1세기에 걸친 공격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성경과 성경이 계시하는 종교까지도 파괴될 것이다. 만일 진화가 이긴다면 기독교는 끝나버린다."고 하였다.

이 두 유명한 변호사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

## 사물마다 보는 각도따라 다른 모습 상대성 목살한 고집이 분쟁의 불씨



여 '예수와 과학'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였으나 테네시법정은 미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40년간 판결을 보류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어빙 스톤은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 있는 한 잔인함, 어리석음, 악독함 그리고 파괴적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기원에 관한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창조론은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 사람들 - 매우 환상적이며 매력적인 사고를 강하게 지녔던 사상가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진화론은 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 사람들 - 매우 성실하며 체계적인 사고를 강하게 지녔던 사상가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우리 속대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질구통을 놓고 앞에서 바라 본 사람은 여자 몸매같이 잘록하게 생겼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내려다 본 사람은 원형으로 생겼다고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30.40% 정도는 맞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가 바라본 방향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우기는 데 있는 것이다. 반대 쪽에서 바라본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세상은 훨씬 수월해 지는데 그것을 못 받아 들이는 것이 중생들의 병인 것이다. 산 밑에서 산을 바라볼 때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 자기가 본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정상에 올라가 산 전체의 모습을 본 사람은 누가 어떻게 주장하더라도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만약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놓고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부처님께 여쭙러 갔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모든 생명들이 절대자에 의해 창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정한 생각을 하였구나.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좀더 깊이 자신을 관조하며 성찰해 보아라. 좀더 분명한 진리가 그대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언기론 = 존재론 + 창조론 + 진화론 <영남대 의대교수>

## 한생각 잘 못 굴리면 여섯 도적, 잘 굴리면 부처 소가 마신물 우유·뱀이 마신물 독이 되는 이치

에 현혹된다면 이사회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관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생은 왜 빈 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 손으로 갑니까. 돈을 좋아하다 보면 인생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귀로 좋은 소리 들으려 하다가 인생을 망칠 때 그것은 이적(耳賊)이요, 말 잘못해서 인생을 망칠 때에는 설적(舌賊)이고, 몸뚱아리 잘못하여 인생 망치면 신적이며, 생각 잘못하여 인생망칠 때에는 의적인 여섯 도적놈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잘 굴리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일월광명부처, 성문여래부처, 설법여래부처, 천백여화신 등 이와같이 한생각 잘못하면 도적놈이요, 한생각 잘하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며, 부처님께서 잡수시면 감로수가 됩니다. 이 한 이치를 알면 매사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차게 하여 마시면 육각수(六角水)가 되어서 좋고, 더운 물은 오각수라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각수보다 더 좋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로수로 만들어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왕에 여러분은 귀하게 나신 몸이고 그러하니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욕심을 비우고 살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이들은 그만큼 공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농사짓는 이의 행복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뿌리는 마음 씨 뿌리는 그 자체가 바로 나와 직결됩니다. 제때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곡식 자라는 것도 인생살이와 다름이 없으며 곧 깨달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곡식이 잘 자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욕심이 충실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되며, 적게 줘도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곡식이 잘 익었다 하더라도 율타리가 없으면 비바람에

도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한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어서 명당에 묻히고자 명당자리를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모두 명당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자신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로 우리가 어디서와서 어디로가는지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입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고 공부하여 자기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바로 불보살이 될 것입니다.

<b>병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국대학교 서울한방병원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 대구 불교한방병원 ▶ 강남구 자혜당한의원 ▶ 인천시 동국대 인천한방병원 ▶ 동인천 길병원 ▶ 송파구 연꽃마을 광명의원 ▶ 청주시 연꽃마을 광명의원 ▶ 군포시 연꽃마을 광명의원 ▶ 대전시 연꽃마을 광명의원 ▶ 국군 원주병원 ▶ 국군 춘천병원 ▶ 국군 현리병원 ▶ 국군 동해병원 ▶ 국군 대구병원 ▶ 국군 수도병원 ▶ 국군 부산병원 ▶ 국군 광주병원 ▶ 국군 마산병원 ▶ 국군 육사병원 ▶ 국군 진해병원 ▶ 국군 대전병원 ▶ 국군 포항병원 ▶ 국군 청령병원 ▶ 국군 일동병원 ▶ 국군 덕정병원 ▶ 국군 벽제병원 ▶ 국군 논산병원 ▶ 국군 참동병원 ▶ 삼성의료원 불교법당 ▶ 국립경향병원 경승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천군 본부중대 ▶ 국방부 군종실 ▶ 화천군 보현사 ▶ 울산시 해안 4대대 ▶ 용진군 호원원광사 ▶ 강서구 의왕사 ▶ 논산군 호국사 ▶ 송파구 사자사 ▶ 부산시 금련사 ▶ 진해시 수곡사 ▶ 노원구 호국사 ▶ 성남시 남성사 ▶ 논산군 연무사 ▶ 광주시 무각사 ▶ 원주시 법흥사 ▶ 대구시 무열사 ▶ 고양시 일송사 ▶ 이천군 상송사 ▶ 완주군 충무정사 ▶ 안양시 충의사 ▶ 연천군 광복동일사 ▶ 철원군 청원사 ▶ 화천군 백안사 ▶ 고양시 백마사 ▶ 흥천군 화양사 ▶ 양평군 독도사 ▶ 양주군 미통사 ▶ 양주군 일월사 ▶ 양주군 광명사 ▶ 전주시 흥경사 ▶ 완주군 사서함 16 ▶ 괴산군 충용사 ▶ 청원시 인곡사 ▶ 달성군 왕룡정사 ▶ 해운대구 자운사 ▶ 중랑구 용마사 ▶ 광주시 관음사 ▶ 은평구 호국사 ▶ 진해시 호국사 ▶ 진해시 흥국사 ▶ 진해시 해인사 ▶ 김포군 청룡사 ▶ 용진군 흑룡사 ▶ 인천시 해운사 ▶ 제주시 해룡사 ▶ 영등포구 쌍용사 ▶ 영일군 해룡사 ▶ 청원군 호국사 ▶ 용진군 국방부 군종실 ▶ 논산군 군종제도과 ▶ 관악구 총정사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적면 군 법당 ▶ 연천군 화랑불교중대 ▶ 연천군 법당 ▶ 전곡읍 정림사 ▶ 적성면 문수법당 ▶ 왕징면 고왕법당 ▶ 청산면 법당 ▶ 화천군 호국수정사 ▶ 화천군 호국단결사 ▶ 연기군 영평사 ▶ 연기군 자운사 ▶ 중원군 청림사 ▶ 고성군 사 71-24-2호 ▶ 고성 사 71-16호 ▶ 고성군 사 71-16호 ▶ 고성군 대안사 ▶ 고성군 사 71-21호 ▶ 고성군 수곡사 ▶ 고성군 사 71-18호 ▶ 인제군 울지법당 ▶ 인제 대대불교군종병 ▶ 인제 본부불교군종병 ▶ 서화면 대대불교군종병 ▶ 천도리 대대불교군종병 ▶ 양구를 도솔사 ▶ 방상면 장안사 ▶ 양구를 비룡사 ▶ 양구를 백석사 ▶ 양구를 천봉사 ▶ 양구를 대암사 ▶ 양구를 이일사 ▶ 양구를 수심사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주군 호암어린이집 ▶ 원주교도소 ▶ 안동군 안동교도소 ▶ 공주시 공주교도소 ▶ 울산군 울산구치소 ▶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 ▶ 경주군 경주교도소 ▶ 제주시 제주교도소 ▶ 대전시 대전교도소</li> </ul>
<b>군법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원군 16중대 ▶ 남양주군 907중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진군 8중대 ▶ 양주군 호국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단체 및 개인 ▶ 용진군 합성법 ▶ 부산시 전태규 ▶ 포천군 군종병 ▶ 울산시 우동관 ▶ 울산시 박주섭 ▶ 부산시 이부임 ▶ 부산시 설진숙 ▶ 부산시 설기수 ▶ 밀양군 설성수 ▶ 안양시 이용길 ▶ 진해시 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소 ▶ 천안군 천안교도소 ▶ 홍성군 홍성교도소 ▶ 강릉시 강릉교도소 ▶ 의왕시 서울구치소 ▶ 달성군 대구교도소 ▶ 장흥군 장흥교도소 ▶ 청송군 청송교도소 ▶ 부산시 부산구치소 ▶ 안양시 안양교도소 ▶ 광주시 광주교도소 ▶ 구로구 영등포구치소 ▶ 송파구 성동구치소 ▶ 전주시 전주교도소 ▶ 구로구 영등포교도소 ▶ 송파구 성동구치소 ▶ 수원시 수원교도소 ▶ 인천시 인천구치소 ▶ 부산시 부산교도소 ▶ 마산시 마산교도소 ▶ 청송군 청송제1감호소 ▶ 천안군 천안소년교도소 ▶ 청주시 청주교도소 ▶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 청송군 청송제2교도소 ▶ 춘천군 춘천교도소 ▶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 진안군 진주교도소 ▶ 무안군 목포교도소 ▶ 옥구군 군산교도소 ▶ 천안시 천안개방교도소 ▶ 송주군 순천교도소 ▶ 원주시</li> </ul>
<p><b>법공양에 동참해 주신 분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현 오계인 1,000 ▶ 한마음 마산지인 300 ▶ 익명독자 100 ▶ 설정수 60 ▶ 윤여형 40 ▶ 한마음대전법회 40 ▶ 구필희 20 ▶ 김우정 16 ▶ 이인제 10 ▶ 이경원 10 ▶ 한마음울산청년회 6 ▶ 박상서 6 ▶ 김억만 5 ▶ 김용석 5 ▶ 박영옥 5 ▶ 김영옥 4 ▶ 김철 4 ▶ 김삼철 4 ▶ 홍차석 4 ▶ 김준성 4 ▶ 임해경 4 ▶ 최병문 4 ▶ 광우스님 4</li> </ul> <p>총:1,655구좌</p>				